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반대**

**한국군 파병 반대**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반대, 한국군 파병 반대

펴낸 곳 〈노동자 연대〉  
wspaper@ws.or.kr  
<https://ws.or.kr>

---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발행일 초판 2026년 3월 27일

# 차례

머리말 ... 4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제국주의론의 관점 ... 6

이스라엘의 침공에 맞선 레바논인들의 저항 ... 18

중동에서의 제국주의,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논란 ... 26

미국의 힘에는 한계가 있을까? ... 44

미국의 피비린내 나는 이란 개입 역사 ... 54

서방은 왜 이란을 두려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 62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말라 ... 70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조삼모사를 일삼으며 파병했다 ... 78

‘방어용’ 무기를 포함해 모든 무기 수출에 반대해야 한다 ... 82

2003~2004년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의 교훈 ... 88

이란 정권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서

미국·이스라엘의 전쟁을 반대해야 한다 ... 94

# 머리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쟁은 더 잔혹하고 위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으로 전선을 확대했고, 미국·이스라엘에 공공연히 협력하고 있는 걸프 연안국들 중 일부는 아예 참전하는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다. 이제 트럼프는 해병대·공수부대 투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세계경제에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를 여실히 체감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의 이번 전쟁은 국제적으로는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전쟁을 멈추지 못한다. 전쟁을 수행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운영자들은 여론보다 그 전쟁에 달린 권력과 이익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전쟁을 멈추게 하려면 그것을 강제

할 위력적인 반전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

사람들이 그저 여론에 머물지 않고 행동에 나서게 하려면 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 특히, 전쟁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여러 중요한 물음들에 답해야 한다. 가령, 이미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이란의 초등학교를 폭격한 것에 충격과 역겨움을 느낀다. 그러나 이란 정권 또한 얼마 전 자국의 수많은 시위대를 학살한 잔혹한 정권 아닌가? 그렇다면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은 이란 정권에 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점들을 분명히 해야 미국·이스라엘의 전쟁과 그 전쟁에 기여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 일체에 일관되게 반대할 수 있다.

이 소책자는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의 관점에서 이번 전쟁의 본질을 밝히고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들에 답하기 위해 <노동자 연대> 신문에 발표된 글들을 부분적으로 편집하고 엮은 것이다. 이란 등 중동이 많은 한국인 독자들에게 생소한 지역인 만큼 배경을 설명하는 성격의 글과, 지난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운동의 교훈을 살펴보는 글도 함께 엮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반전 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무료로 반포한다.

2026년 3월 27일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제국주의론의 관점

트럼프는 지난 1년 동안 7개 나라를 공격했다. 이런 자에게 국제축구연맹FIFA은 'FIFA 평화상'을 줬다.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에 “상당한 진전”(오만 외무장관의 말)이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이란을 공격했다. 미국은 합의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구실을 원했던 것이다. 미국과 협상해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무망하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무기 제조를 막기 위해 공격했다고 주장한다. 거짓말이다. 지난해 6월 '12일 전쟁' 직후 트럼프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말이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1990년대부터 주장해 왔지만, 지금도 이란은 핵무기가 없다. 심지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수준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트럼프는 “이란 국민의 자유”를 들먹인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주의도 공공연히 반대하는 트럼프가 이란의 민주주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겠는가. 미군은 이란 미나브의 초등학교를 폭격해 180여 명을 죽였다. 이것은 앞으로 빈발할 참극의 서막이자 제국주의의 본모습이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습 표적은 이란 정부 청사만이 아니었다. 영국의 저명한 반전 운동가 타리크 알리는 이란 좌파 인사의 집도 공습 표적이 됐다고 폭로했다. 좌파가 장차 미국·이스라엘 반대의 구심점이 될까 봐 미리 제거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전쟁은 이란 민중을 억압적인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 왜 이란을 공격하는가?

미국의 이란 전쟁은 제국주의 시스템이 겪는 위기의 징후다. 이 위기는 근본적으로, 세계 최대의 군사력·경제력을 보유한 미국이 중국의 부상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는 데서 비롯한다.

미국의 패권은 쇠퇴하고 있고, 그 결과 강대국들 간 경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특히,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미중 간 갈등 격화가 두드러진다.

중동 지역에서도 미국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자본과, 중국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자본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패배한 뒤 중국은 걸프 지역 에너지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걸프 지역 원유의 38퍼센트가 중국으로 향하는 한편, 중국의 원자재·첨단 기술·투자가 걸프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제국주의 시스템의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그런 경쟁 격화가 상이한 지역에서 물리력 충돌로 비화되고 있다. 자원 강탈,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납치, 함포 외교, 폭격에 의한 이란 정권 교체 시도 등 자유주의자들조차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행태들이 그것이다.

제국주의 시스템의 중심부에서 전개되는 세력 관계의 변화 때문에, 중동은 지역 강국들이 저마다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다투는 장이 됐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해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이미 그전부터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란 등을 군사적으로 공격해 왔다. 최근에는 국제적 관심이 이란 전쟁에 쏠리는 틈을 타 가자 인종학살과 서안지구 정착지를 늘리고 있다. 또, 레바논을 공격해 3월 25일 현재 1,000명 넘게 죽였다. 그래서 이란 전쟁은 가자 인종학살의 연장선이다.

이란도 이런 지역 경쟁에 뛰어들어 왔다. 이란은 특히 2003

년 이후 미국이 이라크 저항군에게 당한 패배를 이용해 지역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이란은 이라크·시리아 등과 ‘저항의 축’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란 정권이 헤즈볼라와 함께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의 민중 혁명 진압을 지원한 것은 사악한 반혁명적 구실이었다.

미국은 이란 전쟁을 통해 자국이 수십 년간 겪어 온 패배와 패권 쇠퇴를 되돌리고자 한다. 미국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렇게 말했다. “전투기들이 [이런] 하늘에서 하루 종일 죽음과 파괴를 자행할 것[이다.] 애초부터 공정한 싸움을 할 의도도 없었고, 지금도 공정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쓰러졌을 때 두들겨 패고 있고,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은 전 세계는 물론이고 이란조차 대량 살육으로 굴복시킬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광기는 소름 끼치지만 그들의 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신기루다.

## 난관에 봉착한 트럼프

이란은 최고 지도자를 잃은 뒤에도 반격을 하고 있다. 국가 구조가 붕괴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19만 병력의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지휘관 사망으로 지휘 체계에 타격을 입었지만 붕괴하지는 않았다. 이란 정권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미사일과 제공권의 압도적 우위를 과시하고 있지만,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과거 어느 때보다 무모하다. '테러와의 전쟁' 광풍이 일던 2002년 초에도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려 했다. 당시 이란 인구는 6,600만 명이었다(현재는 9,200만 명이다). 그런 나라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대규모 지상군 투입과 장기간의 점령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은 그 계획을 포기했다.

심지어 이란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이라크에서도 미국의 점령은 결국 실패했다. 그 여파로 2011~2013년 아랍 혁명이 일어났다. 역사에서 전쟁과 국내 반란은 종종 연결됐다.

지금 미국 제국주의는 2000년대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불안정한데도 트럼프는 (이란 본토 점령 목적의)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이란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제1차세계대전 이래 폭격만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그나마 우호적인 세력이 지상에 존재해 공군의 폭격과 협공하면서 작전을 편다면 모르겠지만, 이란은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용단 폭격만으로 이란 정권을 제거할 수 없다. 폭격으로 이란 지도자들이 살해돼도,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되면서 기존 정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실제로 강경파로 알려진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권력을 승계했다.

이란의 차기 지도자를 자신이 선택하겠다고 큰소리치던 트럼프에게 한 방 먹인 것이다.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간과한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일종의 외판점에 비유할 수 있다면 이란은 중동 전역에 뻗어 있는 넝쿨과도 같다는 점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글로벌 자본 축적의 새로운 중심지인 걸프 지역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걸프 국가들이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란 정권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30퍼센트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걸프 지역은 에너지 분야를 넘어 동서양 교역의 대체 불가능한 허브로 변모했다. 그런데 지금 유럽·아시아·아프리카를 잇는 이 지역의 핵심 거점 공항들이 마비됐다. 걸프 연안의 왕정들은 단기전은 견딜지 몰라도 장기전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난관에 봉착한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를 두고 살 떨리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 트럼프는 상충되는 두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트럼프는 9일 일부 걸프 연안 왕정들의 압박을 수용하는 듯 전쟁의 조기 종결을 시사했다.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 전날에는 네타냐후와 “공동으로” 전쟁 종식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폭격만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 전술

미국·이스라엘의 전쟁을 반대하는 대중적 반전 운동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란 정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국주의 체제 속에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거대 열강 간의 경쟁만 있는 게 아니다. 이란처럼 지역 강국들도 그 경쟁에 뛰어들다. 이번 전쟁은 거대 열강과 중견 국가 간 전쟁이다. 그런데 그 지역 강국의 정권은 불과 두 달 전에만 해도 자국 민중의 시위를 유혈 진압한 권위주의 정권이다. 실로 이란 정권은 미국 제국주의에 적대적이고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 독립 투쟁을 지지함에도 자국 내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을 대등하게 비난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란 정권의 범죄에 눈감은 채 제국주의로부터 공격받는 그 정권을 편들어야 하는가?

사회주의자들은 이란 정권이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억압적일지라도 결코 제국주의를 편들지 않고 제국주의-시온주의의 패배를 바라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면 이란 대중과 이란 안팎의 소수민족들에게 더한층의 굴종이 강요될 것이며,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의해 팔레스타인, 레바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악행이 저질러질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용단 폭격은 결코 이란 대중의 투쟁을 고취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지지하도록 만듦으로써 투쟁을 후퇴시킬 것이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란 정권은 대중에게 복종을 강요할 더 큰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외세의 군사 개입에 의해서는 진정한 변화가 이뤄질 수 없다. 제국주의의 대리인인 팔레비 지지자들도 결코 변화의 주체가 아니다. 그들은 정권 반대파 중에서 가장 반동적인 부분이다.

한편, 이란 정권이 미국의 적은 맞지만 혁명적이거나 진보적인 정권이 아니다. 이란 정권은 1979년 민중 혁명에서 자신의 정통성을 찾지만, 당시에 노동계급 운동을 극렬 탄압했을 뿐

아니라 오랜 세월 자국민을 학살하고 탄압해 온 반동적인 정권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정권들이 제국주의의 공격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옹호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정권들은 제국주의자들에 맞서 싸우더라도 비효과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자국의 피지배 대중과도 계속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미군의 폭격을 받아 초등학교생 160여 명을 포함해 180여 명이 숨진 미나브의 합동 장례식에서 가난한 농민들은 이렇게 외쳤다.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항복은 없다.” 그러나 이란 정권은 미국·이스라엘에 항전하기 위해 (베트남에 서처럼) 대중을 동원하는 ‘인민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란 권력자들은 이미 확보한 국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얼마 전에 거대한 반정부 항쟁을 벌인 대중을 동원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란 정권은 정규군 중심의 국가 방어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란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브릭스도 전혀 효과적인 반 제국주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메네이가 살해되고 많은 이란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브릭스는 전혀 집단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개별 국가의 성명만 있을 뿐이다.

중국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으면서도 이를 피하기



미국의 폭격으로 죽은 아이들의 장례식에 참가한 이란인들

위해 실질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란 전쟁을 유럽 국가들의 주의를 분산시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이 전진할 호재로 본다.

‘미국의 침략에 대한 억지력’이라는 다극화 세계는 딱 이 정도 수준이다.

이란 전쟁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위기 대응책에는 혼돈과 죽음이 내장돼 있다. 전쟁과 폭력은 언제나 자본주의의 본질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 양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는 과거 그 어떤 행보보다 거대한 전쟁의 불씨를 댕겼기 때문이다. 현재의 전쟁이 지리적으로 어디까지 확대될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견잡을 수 없는 지역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전쟁이 격화하면서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협력을 요청했다. 영국·프랑스·독일은 직접 참전하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협력해 이란의 반격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나토 주요국들과 일본 등 22개국의 이란 규탄 성명에 동참하는 한편, UAE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무기 지원 등을 하되 파병까지 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기 지원도 미국의 대량 학살을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레바논·팔레스타인에서 벌이는 학살에서 노동자 등 평범한 사람들은 얻을 것이 (고통과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쟁과 학살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주한미군 전력은 이미 대규모로 차출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동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지옥문을 열었지만, 국제적 반전 운동도 시작됐다. 미국·영국 등 서방 나라들뿐 아니라 레바논·이라크·예멘·파키스탄 등 중동과 서아시아에서도 반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중동의 반전 운동이 중요하다. 걸프 연안의 정권들은

자국(정확히 말하면, 국내 미국 대사관과 기지들)이 이란에 의해 공격받는데도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협력했다가는 노동자와 빈민들의 반란에 직면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한국 같은 친서방 나라들에서의 반전 운동은 구미와 중동 지역에서 대중이 투쟁에 나서도록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이스라엘의 침공에 맞선 레바논인들의 저항

중동에서 전개되는 사태를 보며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다.

3월 7일 테헤란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석유 저장 시설을 공격해 거대한 불길기 치솟았다. 미군은 167명의 여자 초등학교 학생을 살해했고, 인도에서 열린 관함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이란 군함을 [인도양에서] 교전 중이 아닌데도 격침했다. 그들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이런 행태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이것은 제국주의 역학의 실제 변화를 나타낸다. 제2차세계대전 이래 우세했던 자유주의적 제국주의, 즉 이른바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저물고 포식성 제국주의의 시기에 들어선 것이다. 트럼프와 그의 손아귀에 있는 네타냐후(네타냐후는 트럼프가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이 전쟁을 기회 삼아 중동을 재편하려 한다. 이스라엘을 중동의 최강자로 등극시키고 레바논, 팔레스타인, 예멘 등 저항을 최대한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3월 2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1,100명 넘게 죽었다(3월 26일 현재)

[2026년 3월 8일 현재]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에 배치한 군사력을 늘리고 있다. 조만간 레바논을 침공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했다.] 1982년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은 3만 명을 학살하고 레바논을 폐허로 만드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스라엘 권력층의 일부는 지금을 기회로 여긴다. 헤즈볼라와 레바논 남부의 저항 세력을 궤멸시킬 뿐 아니라, 리타니강 이남의 레바논 남부를 차지할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그곳은 전략적 요충지이고, 시온주의자들이 1919년 이래 줄곧 노려왔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시온주의자들이 처음 제작한 ‘대사이스라엘’ 지도에는 레바논 남부의 도시들인 티레와 시돈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 만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어찌면 전면 침공

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그들의 전략이 실패할 공산 또한 매우 크다.

그들은 레바논 남부의 모든 민간인에게 떠나라고 요구하고, 그런 다음에는 베이루트 남부의 거대한 노동계급 지구인 다히예의 민간인들에게도 떠나라고 요구했다. 레바논 남부와 베이루트 남부를 가자지구처럼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말이다.

[2024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소위 '휴전' 이래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건축가들과의 전쟁'이라고 한다. 파괴된 주택을 복구하러 온 노동자들을 죽이는 데서 이스라엘군이 희열을 느끼는 듯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저항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저항은 재조직되고 되살아났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측이 모르는 듯한 또 다른 요소가 있다. 그들의 계획은 레바논군으로 하여금 잔존 저항 세력을 해체하게 하는 것이었다.(여기서 “저항 세력”은 헤즈볼라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보다 폭이 훨씬 넓은데, 레바논에는 헤즈볼라 외에도 여러 저항 조직이 있다.)

며칠 전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을 향한] 무력 저항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레바논 내전 종전 이래 처음으로 국민의 상당수를 무장 해제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레바논군은 사실상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물러서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전쟁은 네타냐후와 레바논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것임이 명백하다.

그들은 종파 간 긴장을 부추기거나 재점화하려 한다. 이를 위해 레바논 남부나 베이루트 남부의 시아파 지역을 공격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피신한 시아파 난민들을 돕는 연대 네트워크도 공격하려 한다. 그래서 난민들을 받아 준 그리스도인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다. 모두를 겁에 질리게 하고, 내전이 벌어질 조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다.

이스라엘은 2019년 레바논에서 일어난 항쟁의 유산을 상대하고 있다. 당시 항쟁으로 종파와 종단의 차이를 뛰어넘는 정서가 형성됐다. 레바논에서는 수십 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결과 정부에 대한 광범한 반감이 형성돼 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남부 일대를 장악했다. 그러면서 시리아의 과도 정부와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이 생기고 있다.

또,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서 인종청소를 지속하고 있다. 그들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일은 전 세계가 알고 있다. 원래의 모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의 검문소

습이라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종족 간 긴장도 부추기려 한다. 특히 이란 북부의 쿠르드인들을 이용하려 하고, 그럼으로써 이라크 북부와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의 쿠르드인들을 끌어들이려 한다.

이스라엘이 부추기려 하는 이런 갈등들은 장기간의 전쟁과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현 상황의 또 다른 요소는 트럼프가 마치 기업 회장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러저러한 계열사들의 경영자를 해임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교체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대통령 마두로를 납치한 뒤 정권 내의 다른 인사와 거래를 했다.

이란의 경우, 트럼프는 [1979년 이란 혁명 때 타도된] 샤의 아들 레자 팔레비를 차기 이란 지도자감에서 제쳐 버렸다. 팔레비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겠지만, 사실상 트럼프는 그에게 ‘너는 별로 쓸모가 없다. 미국의 이익을 돌볼 인물을 정권 내에서 찾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제 트럼프는 쿠바를 공격하겠다고도 하고 있다. 분명 트럼프에게는 일련의 구상이 있다. 그리고 11월 중간선거라는 시간 제한이 있다. 트럼프는 그때까지 자신의 구상을 최대한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이 꼬이고 있다. 이란에서 일으킨 전쟁이 걸프 전역으로 번지고 있을 뿐 아니라(대략 11개국 이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 전쟁에서 승리할 어떠한 보장도 없다. 트럼프는 이란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이란은 그 공격을 버텨 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나 이란 정권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정권이 살아남으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는 것이다. 레바논과 같은 상황이다. 레바논에서도 저항이 살아남으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슬람주의 저항의 한계에 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레바논 사람들은 1982~2000년 동안 레바논 남부에

서 저항 세력이 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서 싸우는 것을 봐 왔다. 당시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은 레바논 내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의 저항과 긴밀하게 결합된 것이었고 헤즈볼라 같은 세력도 그런 흐름 속에서 성장한 것이다. 특히, 2006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헤즈볼라는 사람들에게서 크게 존경받았다.

그러나 그후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가와 거래를 하고 그 국가의 일부가 되더니, 급기야는 대중 항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짓밟는 세력의 일부가 됐다. 특히 2011년 시리아 혁명을 짓밟는 데 일조하는 나쁜 짓을 했다. 그뿐 아니라 2019년 레바논에서 항쟁이 일어나고 레바논 정규군이 진압 명령을 거부할 기미가 보였을 때, 헤즈볼라는 지지자들을 모아 항쟁을 대신 짓밟으려 했다.

이슬람주의 저항 세력에게는 이처럼 한계가 있다. 한때 국가에 맞섰지만 국가의 일부가 되려 하고 실제로 그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레바논의 특수성은 끊임없이 팽창하려는 포식성 국가 이스라엘의 존재다. 그 때문에 이슬람주의 저항 세력이 레바논 국가의 항구적 일부가 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현재 레바논에서는 연대의 행위 일체가 혁명적 잠재력이 있다. 레바논 남부 피난민이나 저항 세력과 연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레바논과 중동 전역에서 벌어질 일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한 집단에 나머지 집단들이 등을 돌리는 일은 현재 벌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정치적 타격을 줄 것이다.

# 중동에서의 제국주의,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논란

개전 직후 트럼프가 꺼낸 호언장담과 달리, 전쟁은 쉽게 끝날 성싶지 않다. 전쟁의 파장은 즉각적으로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해운 물류가 마비됐고, 자본주의의 새로운 중심지인 걸프 연안 지역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어 자신들을 도우라고 압박하고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란을 공격하기로 한 트럼프의 무모한 선택을 비난한다. <한겨레>의 정의길 선임기자는 트럼프의 “명칭한 공명심”이 문제라고 했다.

물론 이번 전쟁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서, 트럼프 개인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체제, 즉 제국주의다. 가령 미국의 허드슨연구소는 이란 전쟁이 모두 중국과 관련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쟁을 단지 이란을 제

압하는 것뿐 아니라 중국이 중동에서 구축한 입지를 약화시킬 기회로도 보라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는 약화된 미국의 패권을 그 나름의 방식으로 재확립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 중동은 미국·중국·러시아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곳이다. 그 각축전은 이스라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같은 지역 강국들의 경쟁과 맞물려 중동의 혼란을 더 깊어지게 만들어 왔다. 이번 전쟁은 그런 제국주의적 각축전의 일부다.

이 장에서는 중동에서의 제국주의 문제를 살펴 보면서, 이번 전쟁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그리고 한국의 전쟁 지원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살펴본다.

## 제국주의와 석유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려면 먼저 제국주의를 알아야 한다.

제국주의는 복수의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지정학적·경제적으로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경쟁적 자본 축적이 라는 자본주의의 핵심 동학에서 비롯한다. 세계 시장을 둘러싼 기업들의 경쟁이 국가들의 군사적·영토적 경쟁과 맞물리는 것이다.

20세기 초 유전이 발견되면서 중동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전략적 요충지가 됐다. 석유는 자본주의에서 전략적 상품이 됐고, 석유를 통제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중동 장악은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른바 '녹색 전환'이 강조되는 오늘날에도 중동 석유의 위상은 변함없다. 전 세계가 사용하는 에너지 중 80퍼센트 이상이 석유 등 화석연료다. 자본주의는 화석연료 중독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고, 그래서 제국주의에게 중동은 여전히 중요하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패권을 거머쥔 미국은 중동에 비공식 제국을 건설해 지배력을 행사했다. 미국은 서방의 경비견을 자처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한편, 현지 미군 기지 건설과 사우디아라비아·이란 같은 중동 국가들과도 손잡는 방식으로 중동을 통제했다.

그리고 아제국주의(sub-imperialism, 즉 지역 강국들의 성장은 20세기 후반 중동에서 벌어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였다.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튀르키예 등이 지역적 수준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싶은 국가들로 떠올랐다.

그런 지역 강국들의 출현은 북미와 유럽이 아닌 체제의 중심부 밖 일각에서 독자적인 자본축적의 중심이 형성된 데서 비롯했다. 산업 발전에 힘입어 몇몇 국가들이 군사력을 키워 자기 동네에서는 골목대장 노릇을 하려 한 것이다.

중동에서 지역 강국들의 성장은 미국 제국주의의 전략 변화와도 관련 있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고 있던 때인 1969년 미국 정부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내놓는데, 제3세계에서 서방 제국주의의 이익을 지키는 부담의 일부를 지역 강국들이 맡도록 하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군사·경제 원조를 제공한다는 구상이었다.

그 전략의 수혜자 중 하나가 바로 1979년 이란 혁명 이전 팔레비 치하의 이란이었다. 당시 이란은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에서 미국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였다. 1970년대 이란은 F-14 톱캣 전투기 같은 상당수의 첨단 무기를 미국에서 들여왔다. 닉슨과 그의 참모인 키신저는 이란을 이용해 걸프만의 석유를 지키려고 했다.

그런데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비록 혁명 자체는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슬람주의 세력에 의해 중도에 가로채였지만, 결과적으로 이란 혁명은 미국의 중동 지배를 뒷받침하는 핵심축 하나를 부러뜨려 버렸다.

이란을 상실한 것은 미국 지배자들에게 베트남 전쟁 패배에 버금가는 타격이었다. 이후 미국 지배자들은 중동 통제를 위해 가장 믿을 만한 동맹인 이스라엘을 더 지원하는 한편, 중동 국가들 간 경쟁을 부추겼다.

그러나 일찍이 1980년, 당시 미국 대통령 카터는 새 독트린을 발표해 걸프만에서 미국이 직접 무력을 쓸 수도 있다고 천

명했다. 이후 미국은 그 독트린을 여러 차례 실행에 옮겼다.

이런 역사를 보면, 중동의 각축전에서 세계적 강대국들뿐 아니라 지역 강국들도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됐음을 알 수 있다.

## 2000년대 이후 중동의 재편

1989년 동구권 붕괴와 냉전 종식으로 미국은 냉전 경쟁의 승자가 됐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패권은 불안한 상태였다.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점차 약화되고 경쟁자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재천명하기 위해 압도적 군사력을 이용해 중동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1991년 이라크 공격과 2001~2003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인 까닭이다.

그러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은 실패로 끝나고, 중동 상황은 미국의 의도와 다르게 바뀌었다.

아이러니이게도, 이란이 미국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돼 중동 내에서 그 위상이 높아졌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에도 이란은 압제적인 자본주의 국가이자, 대외적으로 지역 강국 구실을 지속하려 했다. 다만 1979년 이전과는 다르게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선다는 기치를 들었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 전쟁 승리를 선언했지만 이후 처참한 실패를 겪었다

미국이 전쟁 수렁에 빠진 사이에, 이란이 이라크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란은 러시아와 함께 시리아 내전에도 개입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마지막까지 지탱하는 반혁명적 구실도 했다.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도 지원하며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이 형성된 것이다.

2011~2013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분출한 혁명은 제국주의와 현지 독재 정권에서 해방될 가능성을 힐끗 보여 줬다. 하지만 미국·러시아 같은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지역 강국들이 관여한 반혁명이 일어났다. 이 반혁명은 군사적 모험주의, 종파 분쟁으로 얼룩지며 중동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처럼 전쟁 실패, 혁명과 반혁명이 교차하며 미국의 중동 통제력이 약화되는 와중에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의 입지가 중동에서 강화됐다.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중동의 석유·가스 생산과 수출 인프라가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약 70퍼센트가 아시아로 향하고 있고, 중국은 걸프만 지역의 가장 큰 투자자이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첨단 기술 제공자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중국에게 이란은 일대일로의 주요 거점이자 중동 진출의 발판이 됐으며, 이란에게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활로가 돼 줬다. 이란산 원유 수출의 80퍼센트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

이처럼, 중동은 세계적 수준의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격렬하게 맞부딪히는 단층선이 됐다. 그리고 제국주의 시스템 중심부에서 벌어진 세력 관계의 변화를 틈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튀르키예, 이스라엘 등 지역 강국들도 책략을 부리며 나름의 이익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동에서 지역 강국들 사이에 쟁투도 치열해져 왔다.

## 가자 전쟁과 그 이후

중동의 이런 각축전에 대응해 근래 들어 미국은 크게 두 가

지 방향에서 대응했다. 우선, 중동을 통제하기 위해 갈수록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이스라엘에 더 의존하게 됐다. 그리고 미국은 아랍 동맹국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개선해 중동 통제력을 강화하려 했다. 2020년 트럼프 1기 정부가 주선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이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의 기습 공격은 미국이 추진하던 중동 전략에 다시 큰 타격을 입혔다.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인종학살 전쟁을 벌였지만, 이에 맞서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원한 서방 정부들은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스라엘도 하마스의 저항을 아직도 분쇄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림의 전부는 아니다. 가자에서 인종학살 전쟁을 하며,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을 끌어들이며 전쟁의 확대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2024년 이스라엘의 극우 재무장관인 베잘렐 스모트리치는 이렇게 선언했다. “한 세대에 한 번뿐인, 역사를 바꾸고 세계의 세력 균형을 바꿔서 미래를 새롭게 그릴 수 있는 드문 기회가 왔다. 머지않아 우리는 새롭고 더 나은 중동을 만들어 갈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극우들이 이참에 서안지구를 병합하고



네타냐후는 확전으로 미국의 지원을 끌어들이려 했고 트럼프는 이에 호응했다

레바논 남부 같은 다른 나라 영토를 더 차지하고 싶어 한다. 네타냐후 정부는 가자 전쟁을 확대해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중심으로 중동을 재편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확전으로 미국의 지원을 계속 끌어들이려 했고, 미국도 이에 점차 호응했다.

‘저항의 축’ 중심인 이란은 무엇을 했는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편 전략은 ‘평화도 없고 전쟁도 없다’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구상을 좌절시키려 하지만 그들과의 직접적 충돌은 피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이란 정권이 근본적으로는 미국 제국주의와 타협을 추구했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이란은 정작 가자에서 인종학살이 일어나는 동안 실질적으로 싸우지 않았다.

이는 이란의 폐착이었다. 이스라엘은 유혈낭자한 전쟁을 벌이며 '저항의 축을 각개격파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2024년 9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해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와 많은 활동가들을 살해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은 '12일 전쟁'으로 이란도 공격했다.

게다가 2024년에 이란이 후원해 온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급격히 몰락해 버렸다. 이스라엘이 일으킨 일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일련의 일들을 거치며 2~3년 새 이란의 대외적 힘은 전보다 약화됐다. 동시에 이란 정권은 내부에서 커다란 대중 항쟁에도 부딪혔다.

그래서 네타냐후 정권은 이란 정권이 대내외적으로 약해진 지금이 다시 공격할 때라고 봤다. 이란을 무력화시켜서 레바논, 팔레스타인, 예멘 등의 저항 세력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저항 세력들이 재건돼 이스라엘을 위협할 가능성이 차단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유대인 역사학자인 일란 파페는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에 대해 이렇게도 지적했다. “현재 이란이 표적이지만, 그 메시지는 모든 중동 국가를 향한다. 이스라엘의 지역 패권 추구나 팔레스타인 인종청소에 감히 맞서지 말라는 것이다. 전자를 달성하면 이스라엘은 후자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면책권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 네타냐후가 이번 전쟁을 하려고 트럼프를 열심히 설득

했던 듯하다. 그렇지만 전쟁의 주도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으로 미국이 그동안 겪어 온 패배와 패권 약화를 되돌리고자 한다. 그래서 이란에 대규모 파괴를 저지르고 얼마 전까지 이란의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거리로 나왔을 수많은 이란인들 머리 위로 미사일과 폭탄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그게 47년 전에 진작 해야 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란 전쟁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아마 베네수엘라처럼 단기간에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듯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전쟁을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힘들다는 걸 실감하고 있는 듯하다.

이란 정권은 이번 전쟁에서 살아남기만 해도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란 정권은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비대칭전을 벌이며 버티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국제 유가가 치솟고 금융 지표가 요동치고 있다.

최근 들어 트럼프는 매우 호전적인 위협과 함께 시장을 달래는 듯한 말도 꺼내고 있다. 이는 이란을 완전히 제압하기 전에 시장이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그가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전쟁은 미국 안팎에서 커다란 반대 정서에도 직면해 있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전쟁 지지가 30퍼센트 미만인데, 미국 현대사에서 개전 직후부터 이토록 전쟁 지지 여론이 낮은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상처 입은 야수가 더 무서운 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을 다시 관철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이를 위해서라면 아주 위험하고 정신 나간 선택을 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상 작전을 준비하는 등 전쟁의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 전쟁은 이미 확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전쟁이 장기전으로 발전해 광범한 지역에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대대적인 파괴가 벌어질 위험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분명 지금 전쟁은 세계적 강국인 미국과 지역 강국인 이란이 격돌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와 모즈타바 하메네이 둘 다 매우 억압적인 자본주의 정권의 수장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해선 안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노력이 실패하기를 바라야 하고, 이를 위해 반전 운동을 최대한 크고 강력하게 건설해야 한다.

트럼프는 앞서 베네수엘라에서의 성공에 도취돼 이란과의 전쟁을 선택했는데, 이란을 상대로도 성공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

지겠는가? 협박과 무력 행사로 미국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는 쿠바에서, 또 그다음에는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고조될지 모른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이란을 상대로 승리한다면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공세적인 인종학살과 팽창주의를 추구하며 더 잔혹하게 나아갈 것이다. 미국은 그런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할 것이고, 중동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의도가 좌절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제국주의를 약화시키고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과 같은 저항 운동의 활동 공간도 확대될 수 있다.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반대가 곧 이란 정권을 지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란 정권은 불과 두 달 전에 대중 항쟁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권위주의 정권으로, 자국민의 지지를 잃었다. 이란 권력자들은 미국에 맞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싸울 뿐이고, 그래서 이 전쟁에 이란 대중을 동원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우리는 다른 데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서 한 군사 전문가는 걸프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안보 협력을 확대해 온 반면 그 나라 국민 대중은 이스라엘의 공세에 여전히 반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 지역에서 “정부와 사회 사이의 취약한 관계

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미군이 주둔하는 바레인 내부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이처럼, 이란 권력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회집단의 힘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이란뿐 아니라 중동 전역의 노동계급과 빈민의 저항이 중요하다. 그들의 저항은 부패에 찌든 현지 지배계급뿐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도 흔들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 반전 운동이 바로 중동에서 민중이 투쟁에 나서도록 고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에도 반대해야 한다. 전쟁이 장기화될 듯하자 트럼프 정부는 한국 등 동맹국들에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다. 곤경에 처하자 그동안 미국을 등쳐 먹는다고 비난해 온 동맹국들에게 손을 벌려 전쟁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하면 될 이 제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는 “한미 간 긴밀히 소통 중이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한다.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도 말을 삼가며 정부의 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적으로 비난이 심하고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선뜻 동참하지 않는 이 전쟁에 이재명 정부가 참여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기대하는 듯하다. 하지만 미국 싱크탱크들의 여러 전문가들은 안보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트럼프 앞에서 쉽게 NO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한다.

역대 한국 정부의 권력자들은 대중의 의사보다는 제국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 지배계급의 이해득실이 무엇인지를 우선시해 핵심 대외 정책을 결정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지지층이 실망하며 대거 이탈하는 것을 무릅쓰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바 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이라는 중심을 잡고” 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NSC 사무차장이었던 이종석은 회고록에서 노무현의 그 결정을 통치자로서 내린 고뇌에 찬 선택이었다고 옹호했는데, 그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장이다. 그와 함께 NSC에서 일했던 위성락이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국익’, 즉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우선해 미국의 중동 전쟁에 동참해 왔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편승해 온 한국의 대외 정책을 계승하는 데 무게 중심을 잡아 왔다.

앞서 주한미군 전력의 증동으로 대규모 차출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이 침략 전쟁의 발진 기지가 됐는데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구현되도록 용인한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시간을 끌면서, 파병할 때 생길 반발과 그림에도 얻을 수 있는 ‘국익’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벌써 안철수 같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정부가 파병을



“살려 달라”는 피랍자 김선일 씨의 호소를 외면하고 파병을 강행한 노무현

결단해야 한다고 성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2020년 청해부대의 독자 파견과 같은 우회적 동참이나 병참 지원 같은 카드부터 꺼내들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미국을 지원하는 파병이다. 노무현 정부도 처음에는 이라크에 의료부대와 공병부대를 보냈다가, 그다음에 자이툰 부대를 보내어 파병 규모와 수위를 높인 바 있다. 한국의 파병은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침략 전쟁에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중동과 전 세계가 더 위험해지는 데 일조하는 결정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파병 요청에 국내 좌파들은 당연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령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한국이 트럼프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전략적 자살”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그

는 미국의 압력에 맞서 한국은 일본과 인도 등 “중견국 연대”를 결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UAE 같은 중동 국가들에 방어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파병보다 국익에 더 이롭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견국 파트너로 꼽은 일본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아시아에서 대중국 봉쇄의 선봉을 자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종대 전 의원의 제안은 벌써 빛이 바랜다.(일본이 중견국이라는 말도 넌센스다.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제국주의 국가다.) 인도도 극우가 집권한 핵보유국으로 불안정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는 지역 강국이다.

중동에 방어 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실 전장에서 방어 무기냐 공격 무기냐의 구분은 완전히 부차적인데, 방패가 있어야 검으로 상대방을 잘 찌를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이 보내는 무기는 걸프만의 노동자와 빈민이 아니라, 걸프의 지배자들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의 지배자들은 모두 미국의 우방으로 이 전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자들이다.

특히, 한국은 10여 년 전부터 UAE와 특별한 유착 관계를 맺어 왔고, 이 전쟁 발발 전에도 이재명 정부는 UAE와 3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을 약속했다. 그런데 UAE는 앞서 언급한 아브라함 협정의 당사자이자 예멘에 군사 개입해 그곳을 생지옥으로 만든 국가다.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협력하는 그런

통치자들에게 한국이 “무기 공급선”이 돼 주는 것이 과연 용인돼야 하는가.

지금 좌파들이 주력할 일은 이재명 정부에 외교 정책을 고인하거나 정부가 미국의 압박을 거절할 만한 명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이고 단호한 반전 운동, 파병 반대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의 전쟁은 미국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반영하는 것이고, 쇠퇴하는 패권을 부여잡으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승리를 위해서라면 트럼프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피가 뿌려져도, 대중이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위험이 커져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저들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전쟁 반대, 파병 반대 구호가 거리와 캠퍼스, 직장에서 더 널리 퍼지도록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전쟁이 키우는 생계비 고통에 대한 불만을 운동과도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전쟁을 패퇴시킬 수 있다면, 더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향한 동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의 힘에는 한계가 없을까?

미국 제국주의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위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란 너무나 쉬운 일이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인종 학살, 지난여름 이란을 상대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벌인 '12일 전쟁',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납치한 사건이 단적인 사례들이다.

미국이 세계에서 군사와 경제 모두에서 가장 우세한 강대국인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국방비로 약 1조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이는 2위부터 10위까지 나라들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은 밥 딜런의 노래 가사처럼 '거대한 대포'와 '죽음의 비행기'를 가진 자신들이 전쟁의 주인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전쟁은 결코 고분고분한 하인이 아니며, 트럼프가 전쟁을 갖고 벌이는 도박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른다.

이란은 자체 제작한 드론으로 걸프 연안국들을 타격할 역량이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이미 입증해 보였으며, 현재

이란 내에는 준비된 친미 지도자도 없다.

트럼프는 신속한 승리를 바라지만, 자칫 장기전에 빠져 중동 전역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

과거 미국이 거둔 군사적 승리들은 지속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10월 7일,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당시 전개된 '항구적 자유 작전'은 9·11 테러에 대응해 미국 정부가 선포한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이었다.

두 달 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수도 카불 함락과 탈레반의 몰락을 자축했다. 부시는 자유와 민주주의, 여성 인권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군벌과 폭력배, 마약상들로 이뤄진 정권을 세웠다. 그 정권은 단 한 번도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2008년 11월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의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여성들과 아이들 37명을 살해했다. 미국의 잔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었다.

탈레반은 뿔뿔이 흩어졌을 뿐 결코 패배하지 않았으며, 곧 미국의 점령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끝없이 뻗은 산맥과 광활한 지형 탓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통제하려면 막대한 병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점령군은 현지에서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없었다.

부시와 그 측근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신속히 승리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한층 더 대담해져서 2003년 이

라크를 다음 표적으로 삼았다.

부시는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이라크를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2002년 미국 정부는 이라크 침공 계획을 지원하라고 다른 국가들을 압박했다.

영국 노동당 총리 토니 블레어는 여기에 적극 호응했다. 거대한 세계적 반전 운동이 일어나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2003년 3월 미국은 '충격과 공포' 작전을 전개해 이라크 도시들에 폭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침공하자 사담 후세인의 군대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쟁을 정당화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2003년 5월 1일 부시는 희색이 만연한 얼굴로 항공모함에서 '임무 완수'를 선언했다. 이 또한 거짓말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어떠한 정통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정권을 세웠다. 팔루자와 바스라 등의 도시에서는 점령군에 맞서는 저항군의 군사적 저항이 계속됐다.

부시가 승리를 선언하고 1년 뒤,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미군이 수감자들에게 자행한 참혹한 가혹 행위가 폭로됐다.

점령 초기에는 시아파와 수니파 무슬림이 단결해 점령군에 맞섰다. 그래서 미국은 이간질해서 각개격파하기 전략으로 선회했다. 점령 당국은 종파적인 시아파 국가를 세웠다. 그들은

이란에 기대를 거는 시아파 지도자들에게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점령자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 학살, 고문은 반동을 낳기도 했다. 반동적이고 종파적인 '이슬람국가'is(이하 아이시스)가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아이시스는 여타 테러 조직과 달랐다. 이들은 적을 공격하는 일보다 이슬람 칼리프 국가를 건설하는 데 집중했다.

2011년 여름, 미국은 이라크에서 철수했다.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 제국주의가 겪은 가장 큰 패배였다.

석유가 풍부한 중동 지역에서 자국의 패권을 관철시키는 데 혈안이 된 미국 정부 탓에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라크에서 겪은 패배의 망령은 여전히 미국 제국주의의 주변을 떠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란을 침공하기를 두려워한다. 전쟁을 시작하기는 쉽고, 군사적 승리를 선언하는 일 또한 간단하지만,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법이다.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 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반대를 심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이미 미국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지지율이 낮다.

미국인의 고작 4분의 1만이 이란 전쟁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전쟁은 트럼프에 대한 불만을 더 키울 수 있다.

게다가 이란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세계 해운 물류를 위협하고 있다.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트럼프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유가는 이미 오르고 있다.

미국 경제는 AI 거품 붕괴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태다. 거기에 더해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투자가 지지부진하다.

트럼프가 벌인 관세 전쟁은 세계 무역을 혼란에 빠뜨렸고, 인플레이션을 더 부채질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고, 정부의 부담도 키울 것이다. 30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 상황 부담도 견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이미 이자를 내는 데만 해마다 1조 달러 넘는 돈을 쓰는 실정이다.

트럼프와 세계 지도자들은 모두 지정학적 경쟁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다.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은 그 경쟁 체제 안에서 자신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거나, 아니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제국들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제1차세계대전의 참상 속에서 로자 룩셈부르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유린당하고,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피바다를 헤치며 오물을 흘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부르주아 사회의 모습이다. … 교양,



미국의 제국주의는 언뜻 막강해 보이지만 슬한 실패와 쇠락을 겪어 왔다

철학, 윤리, 질서, 평화, 법치라는 허울을 쓴 채 말끔하고 도덕적인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탐욕스러운 맹수, 무법천지 악마의 연회, 문명과 인류를 잡아먹는 역병이 있을 뿐이다. 부르주아 사회가 적나라하게 본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오늘날에는 [미국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그 탐욕스러운 맹수이며, 트럼프가 인류를 잡아먹는 그 역병이다. 백악관이야말로 무법천지 악마의 연회장 그 자체다.

하지만 이란의 노동자들은 이전에 혁명을 일으킨 역사가 있다. 그들은 서방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을 지옥으로 만들 명분을 늘어놓으며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있다.

처음에는 핵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이 미국을 겨냥한 무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게다가 트럼프 본인이 지난해 6월에 이란의 핵 시설을 이미 ‘초토화’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더니 이제는 정권 교체가 목적이라고 했다. 공격이 시작될 무렵 트럼프는 이란인들을 향해 “우리가 일을 끝내면, 당신들이 정부를 장악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인들에게 통치자에 맞서 봉기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자기가 새로운 아야톨라를 “임명하는 데 관여해야” 한다고 우겼다.

그러더니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전쟁으로 끌어들이었다고 말했다.

3월 2일 미국 국무부 장관 마코 루비오는 이렇게 발표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행동에 나설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 행동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피해는 훨씬 컸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독자 타격할 준비가 돼 있었으며, 그러면 이란이 보복에 나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다음 날 트럼프는 정반대 이야기를 늘어났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었다는 견해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일각에서도 나온다. 그런 견해는 트럼프 지지층

일부의 주장과도 맞아떨어진다.

극우 논평가인 터커 칼슨과 메긴 켈리는 미군 병사들이 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죽어 나가야 하느냐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전쟁을 원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과 레바논의 저항 운동 조직인 헤즈볼라에 대한 이란의 지원을 끊어 낼 기회가 왔다고 여기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 저항 세력들이 재건돼 이스라엘을 위협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네타냐후는 올해 선거에서 총리직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연립정부 내 극우 강경파들의 지지가 절실한 처지다.

이스라엘 우파의 많은 수는 서안지구를 병합하고 다른 나라 영토에 더 깊숙이 침범하고 싶어 한다.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는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아우르는 '대이스라엘'을 꿈꾼다.

한때는 주변적이었던 이런 사상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점차 지지를 얻고 있다. 이는 네타냐후에게 중동을 더 장악하라는 압력이 되고 있다. 이란에서 내전이 벌어진다면 가자 인종 학살 기획자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기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경비견이다. 건국 이래 이 테러 국가는 서방의 이익을 위협할 반란의 가능성

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성장했다. 독자적인 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고, 미국이 직접 지원하는 무기에 대한 의존이 줄었다. 그만큼 미국이 쥐고 있는 리드줄을 더 팽팽하게 잡아당길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해마다 수십억 달러어치의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그리고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때 이란에 사용한 거대한 ‘벙커버스터’ 미사일처럼 이스라엘이 보유하지 않은 무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은 여전히 충돌의 주체이며, 이스라엘의 행동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 실제로 ‘12일 전쟁’을 멈추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한 것도 트럼프였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전쟁에 나서는 까닭을 보면 그것이 미국 제국주의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드러내는 징후임을 알 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수십 년간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미국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세계은행, IMF, 나토 등 자본주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들을 설립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패권, 즉 다른 나라들을 이끌고 통제하

는 능력이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다. 그리고 자원과 시장을 놓고 신흥 강대국들,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 휘말리고 있다.

이런 경쟁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 역내 강국들 사이의 갈등은 쉽게 확대되거나 훨씬 거대한 전투를 촉발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도 일정한 구실을 한다. 트럼프 행정부 안에는 현 상황을 서방의 숙적에 맞선 ‘문명의 투쟁’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있다. 스티븐 밀러나 피트 헤그세스 같은 극단주의자들은 인종 차별, 이슬람 혐오, 백인 우월주의에 기초해서 움직인다. 어떤 자들은 자신들만의 종말론적 환상에 빠져 있기도 하다.

한 미군 장교는 상급자로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고 병사들에게 설명하라”고 지시받았다고 불평했다. 그 상급자는 “아마겟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언급하며 요한계시록의 특정 구절들을 인용했다”고 한다.

미국의 무기 기업들 역시 전쟁을 반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바로 피 묻은 이익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전쟁 야욕은 사방에서 위기에 직면한 미국 제국주의의 병증일 뿐이다.

미국 제국이 무소불위인 듯 보여도, 트럼프가 만사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미국의 피비린내 나는 이란 개입 역사

오래전부터 서방 정치인들은 이란을 위협하면서 마치 자신이 이란에 “민주주의”를 선사할 지사인 양 행세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서방의 개입은 이란에서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데 기여해 왔다.

쿠데타 사주에서 경제 제재에 이르는 미국의 행태를 보면 이란인들이 미국을 증오할 만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의 석유 산업과 금융에 부과한 경제 제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가난에 시달렸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018년 이란 제재를 부활시키기로 한 이래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돼 왔다.

이란의 보통사람들이 최대 피해자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저항을 촉발하기도 한다. 2017년 12월 소규모로 시작된 시위가 이란 사회에 널리 퍼진 불만과 만나며 확산했고 일부 노동자들이 가세한 일이 있었다. 2009년에는 선

거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녹색운동”)가 이란 전역에서 벌어졌다.

지난 70년의 이란 역사를 보면, 서방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오랫동안 이란의 천연 자원에 군침을 흘려 왔다. 그래서 1953년 이들의 정보 기관은 이란에서 선거로 집권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쿠데타를 사주했다.

그 이전인 20세기 전반부에 영국은 이란 석유 산업을 장악하고 석유를 마구 퍼갔다. 오늘날의 세계적 석유 기업인 BP가 그렇게 탄생했다.

영국 국가가 51퍼센트 지분을 갖고 있던 앵글로-이란석유회사AIOC는 어찌나 막강했던지 사실상 이란을 좌지우지했다. 당시 이란의 ‘샤’와 그의 정부는 석유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석유회사는 자체 병력을 보유하고서 석유 노동자들의 파업을 잔혹하게 탄압했다. 다른 부문에서의 저항은 국가의 억압기구가 탄압했다.

이란 지배자 레자 샤는 노동조합과 정치적 반대파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 짓밟았다.

그러나 중동 전역에서 영국 제국과 식민 통치에 맞서는 저항은 성난 파도처럼 일었다.

1951년 이란에서 샤는 그 압력에 밀려 세속적 민족주의자 모사데크를 총리로 임명했다. 모사데크가 이끈 민족전선은 의

회에서 다수당이 됐다.

모사테크가 이끈 민족주의 운동은 차별받는 사람들을 대변한 진보적 운동이었다. 이들은 중동의 다른 민족주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식민 지배에 도전했다.

모사테크는 무상으로 앵글로-이란석유회사를 국유화했다. 이는 영국 제국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었고,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이란의 주요 항만 도시이자 대규모 정유소가 있는 아바단에서 정유 공장을 되찾겠다며 이란 침공을 검토했다. 당시 영국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는 이에 반대했다. 그의 정부는 이미 말레이시아의 식민 통치 반대 투쟁을 분쇄하는 데, 이집트에서 영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한국에서 미국이 벌이는 전쟁을 지원하는 데 영국군을 보낸 상태였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미국이 영국의 이란 침공을 반대했다. 애틀리는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미국과 행보를 달리할 여력이 없다”고 시인했다.

미국에게 영국의 석유 이익을 지키는 것은 큰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은 중동을 주름잡은 영국의 지위를 자신이 대체하길 바랐다. 그러나 미국도 모사테크는 우려했다. 모사테크는 독에 구멍을 낸 것과 같은 구실을 했다.

모사테크가 정부를 구성한 1951~1953년 2년 동안 평범한 이란인들은 더 많은 경제 개혁을 요구했다.



1953년 미국이 사주한 쿠데타로 집권한 샤

미국은 이란 공산당인 투데당이 성장해서 모사데크를 대신할까 봐 걱정했다. 투데당은 파업과 거리 투쟁, 시위를 조직했다.

## 쿠데타 시도

2013년과 2017년에 미국 중앙정보부 CIA는 모사데크를 내쫓는 데서 자신들이 한 구실을 기록한 문건의 비밀을 해제하고 공개했다.

이를 보면 CIA는 당시 투데당의 지지가 커져서 이란이 스탈린주의 소련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뜩 겁먹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IA는 심지어 모사데크 지지자들을 모아 투데당에 맞서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1953년 4월 미국은 모사데크를 내쫓기로 결정한다. CIA와 영국 정보기관인 MI6는 모사데크를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를 지도한다.

1954년 CIA 요원 도널드 윌버는 쿠데타를 위한 비밀 작전 계획(아약스)을 어떻게 수립했고 수행했는지를 기록한 비밀 소책자를 썼다. 이를 보면, CIA가 모사데크의 주요 정적인 파즈롤라 자헤디에 접근해 그를 총리로 대신 앉히려 한 계획이 나온다.

CIA는 언론을 이용해 모사데크를 비방하고 자헤디를 치켜세우는 선전 활동을 벌였다.

1차 쿠데타 시도는 실패했다. 자헤디는 CIA가 제공한 은신처로 숨어야 했고 샤는 이라크로 도망쳤다. 그러나 쿠데타 직후 벌어진 혼란 와중에 CIA 요원들은 언론을 통해 모사데크 반대 선동을 하는 데 전력했다.

며칠 후 샤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또다시 쿠데타가 벌어졌고 결국 성공을 거뒀다. 모사데크는 체포됐고 이후 남은 생애를 감옥과 이후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야 했다.

법정에서 모사데크는 결연하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유일한 죄는 이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이 땅에서 식민주의 조직을 제거하고, 지구상 최대 제국(영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없앤 것이다.”

쿠데타 직후 CIA는 자헤디 정부가 유지되도록 수백만 달러를 은밀히 지원했다.

미국의 대대적 군사적 지원을 등에 업은 샤는 새로운 군사 독재를 실시했다. 이제 이란에는 미군 2만 4,000명이 주둔하게 됐고, 수도 테헤란에는 CIA 중동 본부가 들어섰다.

CIA는 이란에서 새로 창설된 보안경찰 ‘사바크’를 훈련시켰다. 사바크는 무수한 이란인을 살해하고 고문했다.

미국 기업들은 부흥하던 이란 석유 산업을 나눠 가졌다. 수많은 평범한 이란인들은 여전히 가난에 시달렸다.

이른바 “근대화” 계획은 이란에서 성장하던 노동계급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을 기초로 이뤄졌다.

## 이란 혁명

불만이 점점 쌓이고 있었다. 1977년 경제가 추락하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대중 시위에 나섰고 이내 이란 전체를 뒤흔든 혁명으로 발전했다.

대규모 파업 물결이 일었고 게릴라 전투가 벌어졌다. ‘쇼라’라고 불린 파업 위원회가 공장을 장악하고서 가동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시위뿐 아니라 시 낭송회 같은 집회에도 수만 명이 몰렸고 나중에는 100만 명이 거리로 나섰다.

실로 강렬한 민주주의 각성 과정이었다. 늘 그렇듯, 미국은 이를 꺾으려 했다.

모사데크를 내쫓았던 바로 그 샤는 1979년, 평범한 이란인들의 손에 쫓겨났다. 미국은 그가 도피할 곳을 제공하고 이란에 제재를 가했다.

혁명은 복잡한 과정이다. 샤가 몰락한 이후 이슬람 성직자들이 이끄는 중간계급 세력이 지도력을 잡았다.

성직자 루홀라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새로운 억압적 정부가 탄생했다.

호메이니는 좌파와 노동자 조직을 탄압했지만 미국에 맞섰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다.

1979년 11월 호메이니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그 직원들을 1년 넘도록 인질로 잡아 뒀다.

그 학생들이 내건 요구를 보면 미국이 지원한 억압적 샤 정권 하에서 이란인들이 느낀 분노를 알 수 있다. 그들은 샤를 재판에 세울 수 있도록 이란으로 돌려 보낼 것, 미국이 가하는 제재를 해제할 것, 모사데크 제거 쿠데타에 대해 미국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오늘날까지도 이란 정권과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광 대통령 트럼프나 그의 서방 지지자들이 제시하는 명분은 진정한 이유가 아니다. 중동에서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보유한 전쟁광 독재자들 중에는 서방의 최측근 동맹도 여럿 있다.

미국에게 진정한 문제는 이란이 1979년 혁명 이래로 미국

제국주의와 화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이란 혁명 이듬해에 이란을 침공했을 때 이라크를 지원했다. 이란-이라크 전쟁은 8년간 지속됐고, 이란인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미국은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했고 파괴했다. 1988년에는 심지어 이란 민항기를 격추해서 29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미국이 수년째 이란에 가하는 제재는 평범한 이란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줬다. 중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의약품도 심각하게 부족하다.

미국은 이란 정부에 맞서 벌어지는 반란과 시위를 지지하지만, 진정으로 저항을 응원해서가 아니다. 2018년 초 시위가 벌어졌을 때도 그랬다. 2015년 핵 협정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적대 정책을 그나마 누그러뜨린 것이었다.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이란이 핵 개발 제한을 받아들이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핵 협정 이후에도 미국의 이란 위협 정책은 계속됐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는 제재를 부활시켰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에 나서도록 고무해 왔다.

미국은 1953년에도 그랬듯 이란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을 수 있다.

# 서방은 왜 이란을 두려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 Q. 이란 정권의 본질은 무엇인가?

현재의 이란 국가는 1979년 혁명 이후에 등장했다. 이 혁명은 증오의 대상이었던 샤(페르시아어로 '왕'이라는 뜻)를 날려 버리며 서방의 지원을 받았던 그의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란은 자본주의 국가로, 시아파 이슬람을 따르는 보수적인 이슬람 성직자들이 지배계급 내 가장 강력한 세력이다. 이란은 아류 제국주의 국가이지만 중동 지역의 주요 세력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

이란을 지배하는 성직자들은 자신들만의 종교적 법을 갖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엄격히 집행한다. 이란 국가는 여성의 권리와 성소수자에 대한 반동적인 사상과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이란 국가는 경제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며, 대공업·미디어·

통신·운송 등 여러 부문을 지배한다. 그리고 국가 총수입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석유 산업을 소유하고 있다.

이란 지배계급은 다른 모든 자본가 계급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즉, 자신들의 기존 특권을 유지하면서 경제·정치적 권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이란 지배계급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를 비롯한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의 아제 국주의적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은 이란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란은 자신들의 시아파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는 저항 단체들을 지원한다. 예멘의 후티도 그런 단체의 하나인데, 어느 정도는 이란이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와 적대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지원한다.

그리고 이란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데, 아사드 정권은 사우디가 지원하는 아이시스 그룹 그리고 2011년 시리아 혁명의 잔존 세력에 맞서 싸웠다.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 둘 다와 친구가 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하려 해 왔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며 이란 석유 수출의 약 80퍼센트 이상을 구매한다.

## Q. 이란은 독재국가인가?

이란은 성직자들이 민주주의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통치하는 권위주의 정권이다.

그러나 이란은 서방 언론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획일적 국가는 아니다. 이란 국가기구 내에는 경쟁하는 정치 파벌들이 존재한다.

때로는 이러한 파벌들이 지배계급 내부의 분열을 반영하며 여러 정치적 위기를 초래해, 다른 형태의 사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더 많은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들이 자주 등장하고, 때로는 운동이 노동조합, 여성운동, 민족적·종교적 권리를 요구하는 단체들과 섞여 들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는 이러한 모든 운동을 탄압할 수 있었다.

성직자들의 권력은 이란의 최고지도자와 헌법수호위원회(종교 전문가와 변호사로 구성된 12인 기구)를 통해 보장돼 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는 종교적 권위에 기초해 정치 권력을 갖고 있다. 그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이란 군대를 지휘하고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최고지도자로서 그는 모든 군대 및 경찰 수장, 법원장, 국영 매체의 책임자를 임명하고 해임한다.

최고지도자는 이란군 중 이란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이슬람혁명수비대에 대해서도 통제권을 갖고 있다.

헌법수호위원회는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를 승인하고 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 통과된 어떤 법안이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수호위원회 구성원의 절반은 최고지도자가 임명하며, 최고지도자는 헌법수호위원회의 구성원 누구든 해임할 수 있다.

헌법수호위원회는 존속해 온 내내 선거에서 개혁파 후보자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개혁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수파들을 도왔다.

이러한 기구들 아래에 대통령과 의회가 있는데, 대통령은 선출직으로 정부 수반이며 장관을 임명하고, 의회는 290명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이 실제로 이뤄진다. 그리고 개혁파, 온건파, 보수파로 나뉘어 경쟁하는 파벌이 있으며, 각 파벌 내에도 여러 그룹이 있다.

개혁파는 사회적 제약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며 정치 개혁을 원한다. 그들은 더 온건한 버전의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서방 제국주의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자고 제안한다.

보수파는 더욱더 엄격한 버전의 이슬람을 원하며 이란 국가가 서방에 계속 적대적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1979년 이래로 보수파가 권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 추세다. 개혁파가 서방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전쟁 발발 가능성이 생긴 것 때문에 개혁파는 심각하게 약화됐다.

## Q. 이스라엘은 왜 이란을 싫어하는가?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전역에 걸쳐 군사·정치·경제적 권력을 놓고 이란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무너뜨리려 필사적이다.

이스라엘은 서방이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 시도를 중단하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 야심을 제한하려고 협상에 나서는 것도 중단하길 원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서방이 이란을 폐허로 만들 전쟁에 동참하기를 바랐다.

반대로 이란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불량배들에 맞설 수 있는 세력으로 자신을 내세운다.

이란은 자신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한다는 것을 명예로운 훈장처럼 여기며, 팔레스타인 해방 문제를 시온주의에 맞선 이슬람의 싸움인 것처럼 규정한다.

1979년 혁명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점령된 팔레스타인에 있는 불법 국가라고 말했다. 이란은 이스라엘 시민들의 이란 입국을 금지하고,

모든 이란인의 이스라엘 여행을 막았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은 팔레스타인 인들을 위한 대사관으로 변모했다.

이스라엘이 느끼는 두려움의 중심에는 이란이 이스라엘 자신의 핵무기와 경쟁할 수 있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사실이 있다.

현재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지역 강국으로, 이 덕분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군사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경쟁 때문에 그들은 오랫동안 “그림자 전쟁” 형태로 서로의 이익을 공격하는 데에 골몰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발전 및 군사시설에 대해 파괴 공작과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왔으며, 이란은 이스라엘 유조선에 대해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역시 사이버 공격을 전개해 왔다.

## Q. 이란의 현 정권은 어떻게 등장했는가?

1979년 이란 국민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잔혹한 군주정을 전복시켰고, 중동 지역에서 미국 제국주의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이란 혁명에는 노동조합, 민족주의자, 좌파 등 많은 세력이 참여했지만, 결국 이슬람 성직자들을 이끈 루홀라 호메이니에

의해 왜곡됐다.

그는 이슬람 운동의 더 온건한 부류 그리고 노동자 권력에 반대했고, 반대파들을 투옥하고 고문했다

혁명 이전에 이란은 샤가 통치했는데, 샤는 1953년 미국과 영국이 지원한 쿠데타 세력이 1954년 권력에 앉힌 왕이다. 이 쿠데타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려 했던, 대중의 지지를 받던 정부가 전복됐다.

샤는 일부 전통적 종교 기관과 수백만 명의 빈민층을 소외시키는 자본주의 발전 프로그램을 밀어붙였다. 엄청난 불평등과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이 있었다.

1977년 여름부터 샤에 반대하는 상당한 규모의 시위와 파업이 벌어졌으며, 그 규모와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났다.

1978년 10월 노동자들은 전국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쇼라'라고 불렀던 파업위원회가 설립돼 활동을 조직하고 조율했는데, 이는 운동이 혁명적으로 변했다는 신호였다.

12월에는 당시 3,700만 명의 인구 중 6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대가 시위를 벌여 샤의 타도를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전국에 쇼라를 세우며 도시와 마을을 장악했다.

1979년 1월 16일, 샤는 망명길에 올랐다. 가장 저명한 종교 지도자였으며 샤를 거침없이 비판했던 호메이니가 혁명 기간 내내 자신의 지지 기반을 엄청나게 키워 왔다. 2월 1일, 그는

자신을 국가 원수로 선언했다.

그러나 사의 독재를 대신할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 결정하기 위한 격렬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성직자들이 혁명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했다.

자본가 계급의 많은 이들은 좌파에 함께 맞서기 위해 성직자 기관들과 힘을 합쳤다. 호메이니는 소라가 성직자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국가 통제력을 재확립하기 위해 움직였다.

성직자들은 탄압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했고, 좌파를 공격하고 베일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들에게 “도덕성”을 강요하기 위해 폭력단을 조직했다. 호메이니는 이란의 최고지도자로 옹립됐고, 그 결과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자본주의 신정 국가가 탄생했다.

#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말라

트럼프의 파병 요청은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차질을 빚고 있음을 드러냈다. 초기 기습 공격으로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지 못했고, 현재 이란의 응전을 분쇄하지도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다른 국가들에 파병을 요구하기 바로 전날에도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트럼프의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는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력을 90퍼센트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바로 몇 시간 후 미국의 역내 핵심 우방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맹공을 받았다.

트럼프가 받는 압박은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퍼센트 이상이 오가는 호르무즈해협의 봉쇄를 미국이 풀지 못하자 원자재 가격과 금융 지표가 요동쳤다. 트럼프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특유의 허세를 부렸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가뜩이나 취약하던 공급망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위협



한국군 파병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모험과 학살에 힘을 보태는 일이다

에 직면했다는 분석들이 제기됐다. 이는 잠재적으로 미국 패권에 증대한 위협 요인이다. 2007~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는 미국의 패권에 상처를 준 중요한 한 계기가 됐다.

트럼프가 호르무즈해협 '탈환'에 힘을 보태라고 동맹국들에게 요구한 것은 미국이 단독으로 봉쇄를 해제하지 못함을 시인한 것이다.

트럼프는 동맹국 군함들이 이란의 공격을 상대할 동안 미군이 "해역 전체를 폭격해 초토화하고 이란 배를 계속 격침"할 것이라고 한다. 동맹국 군인들이 미군 대신 드론 밥이 되라는 것이다.

미군에게는 호르무즈해협 전체를 초토화할 포격·폭격 능력이 있지만, 이란의 공격을 모두 차단하기에는 현재 미군의 파견

전력이 모자란다. 그래서 트럼프는 즉각 병력을 동원할 수 있거나 이미 동원 중인 국가들에 군함을 꼭 집어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동맹국들은 그 요청에 즉각 호응해 뛰어들지는 않았다. 작전 성공 가능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호르무즈해협은 가장 좁은 구역의 폭이 39킬로미터에 불과해, 이란이 드론을 이용해 군함과 상선을 괴롭히기 좋은 전장이다. 미군이 이곳을 '킬박스'라고 부르는 이유다.

개전 후 이곳에서 미군의 총 사상률은 1.43퍼센트에 이른다(미국 언론 〈밀리터리닷컴〉 추산). 단순 계산으로 청해부대 300명이 투입되면 네 명이 죽거나 다치는 꼴인데, 군사전문가들은 이것이 2003~2011년 이라크 전쟁의 총 사상률에 약간 못 미치는 높은 수치라고 지적한다.

## 파병은 군사적·정치적 지지, 미국 제국주의 지원

미국이 동맹을 모아 다국적군을 구성하려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국제적 지지를 모아 전쟁의 정당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애초에 이번 전쟁은 미국이 냉전 종식 후 벌인 주요 전쟁 중 동맹국의 동참이 가장 적었다. 나토와 유엔의 동의를 받지 못해 빈축을 샀던 2003년 이라크 침공 때조차 영국·스페인·이

탈리아 등이 병력을 보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은 이스라엘과만 공조해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특히 지난 2년여간 벌인 인종학살과 중동 확전으로 세계적 반발을 사고 있다.

트럼프는 돌파하기 어려울 듯한 난국이 닥치자 그제서야 동맹국들을 모으려 한다. 유럽 주요국들과 한국·일본이 트럼프의 요청에 응해 다국적군을 결성하면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저지른 막대한 학살 범죄를 공동 책임지는 것이다.

평범한 청년들을 제물 삼아 침략·강탈 전쟁을 도와야 하는가?

트럼프는 제국주의적 목표를 위해 이란인 수천 명이 죽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학살 하고 레바논을 침공해 폭격하며 중동 곳곳을 피로 물들이고 있다.

그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파병은 미나브 초등학교에 떨어진 미사일을 편든다는 것이고, 가자의 병원들을 파괴한 자들을 응징의 공포에서 빠져나오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병은 평범한 이란인들과 중동인들을 더 위협케 할 것이고, 팔레스타인인들이 더 고립되고 공격받게 할 것이다.

파병은 그 자체로 트럼프의 전쟁 드라이브를 지지한다는 선언이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손쉽게 납치한 것

에 고무돼 이란 공격에 나섰던 것 같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 트럼프가 편 일련의 공격이 모두 중국을 의식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모두 경제 봉쇄 때문에 중국에 석유를 많이 수출했고, 중국의 지역 교두보 구실을 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강탈 의지를 표명할 때도 북극해에서 중국을 축출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파병은 중동의 참상을 키울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가 위협해지는 데에도 일조할 일이다.

## 이재명 정부,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한다고?

일고의 가치도 없이 거부해 마땅한 이 ‘제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는 “한미 간 긴밀히 소통 중이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한다.

서해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할 때도 알리지 않았고, 주한미군 무기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미국이, 상의도 없이 시작한 이번 전쟁에 관해 한국과 무엇을 더 “긴밀히 소통”하겠는가?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결정을 참고하려고 시간을 끄는 듯하지만, 동시에 파병할 때 얻어 낼 ‘국익’(한국 자본가들을 이롭게 할 대가)을 두고도 고심할 것이다. 역대 한국 정부들이 미국의 전쟁 지원 요청에 거의 빠짐없이 화답해 온 역사를 떠올리면서 말이다.

2004년 한국 정부가 전투병을 파병해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파병’이라고 정당화했다.

하지만 파병은 한국 자본주의의 정치적 위상을 올렸지만 그 파병은 노무현이 약속한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주한미군은 해외 파병과 대중국 방어용으로의 전환이 시작됐다(“전략적 유연성”). 평택 미군기지 합의와 건설이 바로 그 척도였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도 그때 시작됐다.

6자회담은 말잔치로 끝났고, 미국의 대북 적대 노선은 변하지 않았다. 남북 관계도 경색됐다. 그래서, 임기 막판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어도 남한 정부는 북한이 핵무장 노선으로 가는 걸 말릴 수단도 없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요청에 화답해 청해부대를 ‘단독 작전’ 형식으로 호르무즈해협에 투입했다. 당시 이란은 이에 격분했고, 이후 한국 유조선을 나포하기도 했다.

이번에 파병한다고 해서 호르무즈해협을 지나야 할 선박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발이 묶인 상선에 있는 전정근 HMM해상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전했다.(3월 17일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금 여기는 해적이 아니라 미사일·드론·기뢰가 날아다니는 전시 상황이다 보니 [군함에] 호송을 한다고 [해도 위험합니다.]”

“선박의 안전과 선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할 수는 없습



3월 16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니다.] ... 선원은 군인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전정근 위원장은 파병이 아니라 전쟁 중단만이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답했다.

## 국회만 바라볼 일 아니고 반전 운동 키워야

일각에서는 국회가 파병을 부결하기를 기대한다. 심지어 일본 극우 여당 자민당조차 파병에 난색을 표했다며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파병 관련 입장 표명을 극도로 삼가고 있다. 명백하게 파병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지금까지(3월 17일 현재) 이기현·위성곤 의원 두 명뿐이다.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너도나도 한소리 한 것과 대비된다.

진보당 의원단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파병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그 소수의 의원들이 원내 협상으로 민주당을 움직이리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민중의소리>는 사실에서 “파병반대 국민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옳게 주장했다. “국민들이 나서서 파병 반대 여론이 강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나설 수 있고, 정부에 명분이 생긴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은 해외 파병 결정과 파병 연장에 줄곧 찬성해 왔다. 명백한 제국주의 침략 전쟁 동참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 레바논 파병, 소말리아 파병, UAE 파병 등. 민주당도 한미동맹 문제에서는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반전 여론을 대변하는 반전 운동의 압력은 민주당 내에서 소수의 반란표만 조직할 수 있었고, 결국 파병되자 운동의 기세도 꺾인 경험이 있다. 국회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반전 운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트럼프·네타냐후 전쟁 반대 운동은 전쟁과 전쟁이 키울 생계비 고통, 청년들의 좌절과 울분, 권위주의·군국주의 강화, 극우의 발호 등 각종 위기에 맞설 저항과 연결될 수 있다.

##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조삼모사를 일삼으며 파병했다

파병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말은 도통 믿을 수가 없다.

“공식적 파병 요청을 받은 바 없다”(국방장관)더니 “파병 요청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외교장관)고 한다.

“파병 요청에 아주 신중하게 대처”(청와대)하겠더니 어느새 “호르무즈해협을 최대한 빨리 개방한다는 [트럼프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 군사 동맹 나토의 회원국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렇게 온갖 모순된 말을 흘리다가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한 것은 역대 민주당 정부들이 보인 일관된 패턴이었다.

2020년 1월 호르무즈해협 파병 당시 문재인은 트럼프의 파병 요청에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말을 흐렸고, 당시 외교장관 강경화는 “파병에 관해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며 요청을 거부할 듯한 뉘세를 풍겼다.

그로부터 꼭 1주일 후 문재인 정부는 청해부대 파병을 발표

했다. 그전까지 신중론을 내놓던 민주당은 “정부의 해결 방안을 존중하겠다”며 파병 결정을 비호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이 미국의 요청과 구분되는 ‘독자 파병’이라고 했다. 일토당토않는 변명이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란 압박에 일조하려 파병하는 것인데 그 운용을 누구와 협력하겠는가. 이란과?

사실 문재인 정부는 발표 전부터 파병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군은 이란을 겨냥해 청해부대에 대對잠수함 무기를 보강해 뒀고 대원들에게 작전 지역 변경 가능성을 공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에 파병 여부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생각도 없었던 것이다.

##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던 노무현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노무현은 미군 장갑차의 중학생 압사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청년 시위 덕에 대통령이 됐지만, 취임 한 달 만에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고 협력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능동적으로 편승하는 것이 한국 국가의 위상 제고와 한국 경제에 이로울 것(국익)이라고 판단해, 국민 70퍼센트 이상이 반대한 파병을 추진했다.

노무현은 좌파와 평화 염원 대중의 분노를 피하려 온갖 거짓 말과 말바꾸기를 했다. 파병 예정 지역이 안전하다고 거짓말하고, 선발대로 의료부대와 공병부대를 보내며 “비전투병” 파병이라고 연막을 쳤다. 그러나 막상 2004년 파병된 자이툰부대 본대는 병력의 80퍼센트가 전투병이고 예산의 90퍼센트가 무장 비용이었다. 정부는 이 부대를 “훈성 부대”라고 불렀다.

“[파병을 결정하면] 부끄러운 날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던 범여권 의원들은 노무현의 발표 후 재빨리 파병 찬성으로 돌아섰다. “대통령과 정부가 결정한 것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당시 여당 원내대표 김근태)

이후 파병과 파병 연장이 국회 표결에 부쳐질 때마다 반전 입장을 줄곧 고수한 여당 국회의원은 임종인 의원 한 명뿐이었다. 이후 임 의원은 당내 “왕따”로 취급받다가 떠밀리듯이 열린 우리당을 탈당했다.

노무현은 미국의 파병 요청을 들어주는 대가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고故 리영희 선생이 일갈했듯 “한국 정부가 아양과 아첨을 떠냐고 부시 정부가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연설 전문: 격주간 <다함께> 5호, '리영희 교수의 국회 앞 집회 연설 - 내가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 <https://ws.or.kr/article/636>).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제국주의적 세계 전략에 종속된 것이었고, 따라서

이라크 파병과 한반도 평화는 애당초 “교환” 대상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는 6자회담이 ‘평화 교환’의 성과라고 자찬했지만, 대북 압박으로 인한 역내 긴장은 계속 고조됐다. 그 긴장은 결국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으로 이어졌고, 노무현의 ‘평화 교환론’은 완전히 파산했다.

좌파와 대중의 평화 염원을 배신한 파병은 노무현 정부를 임기 초부터 위기에 빠뜨렸다. 특히 청년 지지층의 이반을 촉발했기 때문이었다(고故 서동만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회고). 훗날 노무현 스스로도 자신과 자신의 당이 “민주주의·진보·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토로했다.

그 후에도 노무현 정부, 여당 열린우리당과 그 후신 정당들의 파병 지지는 계속됐다. 임기 말 레바논에 헤즈볼라 견제를 ‘평화 유지’로 포장한 유엔군 소속으로 동명부대를 파병했다. 야당이 돼서도 이명박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과 아덴만 파병(청해부대)을 지지했다.

노무현은 대선 당선 직전 “반미면 어떡냐”는 말로 지지를 얻었다. “미국에 ‘땡큐’ 하겠다”며 트럼프에 왕관을 선물한 이재명 정부는 믿을 수 있을까?

## ‘방어용’ 무기를 포함해 모든 무기 수출에 반대해야 한다

이란 전쟁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랍에 미리트UAE에 천궁-2와 같은 ‘방어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평범한 중동 민중이 이란의 반격 미사일에 맞아 죽거나 다치지 않길 바라는 사람도 이란 미사일을 요격할 천궁-2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 대인 지뢰는 방어용 무기로 분류되지만, 전쟁에서 적군의 다리를 절단시키거나 죽게 한다.

방어와 공격은 동전의 앞뒷면이자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된 전투 행위이기도 하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다. 거꾸로 방어는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최고의 방어 체계는 사소한 공격조차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래서 패트리엇이나 사드, 천궁-2 같은 ‘방어용’ 무기에 그토록 공

을 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방어용’ 무기는 대개 민간인 거주지가 아니라 미사일 기지나 전투기 활주로 등 ‘공격용’ 무기를 지킨다.

현재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 돔’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다. 성주에 배치돼 있는 사드THAAD(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을 위한 무기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은 방공 무기 체계다. 그러나 그것은 팔레스타인 식민 점령과 가자지구 학살, 그리고 아류 제국주의 국가 이스라엘의 ‘대이스라엘’ 야욕을 뒷받침하는 무기다.

이재명 정부가 UAE에 지원한 천궁-2가 요격 미사일일지라도, 이란 전쟁 전체를 놓고 보면 이란의 반격을 좌절시킴으로써 미국의 이란 공격을 뒷받침하는 데 쓰인다.

## ‘방어’라는 말이 가리는 것

지배자들은 군사적 경쟁과 전쟁에 대중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방어,’ ‘방위’ 같은 이데올로기적 용어를 사용한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지킨다’는 관념을 퍼뜨리는 것이다. 실제로는 국민 중 일부(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그것도 선제공격을 할 때조차 말이다.

그 밖에도 각국 정부는 전쟁 준비 예산을 ‘방위’ 예산으로 포

장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정부 부처를 ‘국방부’라고 부른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지배계급이 ‘방어 전쟁’ 운운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기 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썼다.

“노예 100명을 소유한 노예 소유주가 노예 200명을 소유한 노예 소유주에 대해 ‘공정한’ 노예 재분배를 요구하며 전쟁을 벌인다고 상상해 보라. 이런 사례에 ‘방어적’ 전쟁이나 ‘조국 방위’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역사적으로 오류일 것이다.”

## 무기와 계급

자본주의하에서 군사 무기가 방어용이나 공격용이나, 비상상용이나 살상용이나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군사 무기는 대중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35 전투기, ‘K-방산’이 개발한 K-2 흑표 전차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노동자들은 전혀 통제할 수 없다. 그 무기들은 (‘외환’ 유치 기도에 대한 수사에 반발한) 군부의 손아귀에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와 그것이 독점하는 군사 무기의 계급적 성격과 관련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겉보기에 중립적 기구처럼 보이지만, 실제

로는 자본가 계급의 이윤과 권력을 보호하며 계급 질서를 수호한다.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벌어지는 자본가들 간 경쟁에서 자국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수호한다.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데서 무장력은 필수다. 레닌은 국가를 “특수한 무장 집단”이라고 했다.

자본주의 초창기에 부르주아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과정(시초 축적)에서부터 국가의 무장력이 동원됐다. 이후 기업의 이윤 축적을 위협하는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파업을 진압할 때 국가는 무장 경찰을 투입한다. 체제를 위협할 만큼 강력한 대중 저항이 일어나면 국가는 군을 동원하기도 한다.

## 지배자들의 필요

특히, 자본주의 국가들 간 경쟁 시스템 속에서 한 국가의 군사력은 그 나라 자본가들이 세계시장에서 벌이는 경쟁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각국 정부들은 어마어마한 자원을 무기 개발·생산에 쏟아붓는다. 미국은 공식 통계로도 노숙인이 77만 명(2024년 기준)에 달하지만, 올해 미국 국방비는 9,006억 달러(약 1,200조 원 이상)에 달하고 그중 상당 부분이 첨단 무기에 쓰인다.

20세기 초 독일에서 반전·반군국주의 운동에 앞장선 혁명가



UAE로 수출된 천공-2는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UAE 왕정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카를 리프크네히트는 계급 사회인 자본주의 사회의 무기 생산에 대해 이렇게 썼다.

“경제적 지위에 따라 계급 구분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계급 간 정치적 권력 관계는 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지적·도덕적·물리적 수단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강조는 인용자]

“이는 사회 투쟁에서 무기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 준다. …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을 강제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바로 이 무기 기술에 달려 있다.

“… 계급 분열은 무기 기술의 발전과 병행돼 진행된다. 따라서 무기 생산은 갈수록 전문적인 기술이 된다. 게다가 계급 지배는 원칙적으로 한 계급이 다른 계급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음으로써 일어난다. 무기 기술의 향상은 무기 생산을 더욱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하므로, 무기 생산은 점차 경제적 지배계급이 독점한다.”(《군국주의와 반군국주의》, 영어판)

그렇게 생산된 군사 무기들은 지배계급의 필요, 즉 계급 질서 수호와 국가들 간 쟁투에 쓰인다. 지배자들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에서 노동계급 대중이 얻을 이익은 없다.

UAE를 비롯한 걸프 군주국들은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을 들여 각종 첨단 무기로 무장한다. 그 무기들은 노동자·빈민·이주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

UAE로 수출된 천궁-2가 이란의 반격을 막는 데 쓰이지만, 그것은 UAE 지배계급의 이익(역내 정치적·경제적 영향력, 미국과의 동맹 유지 등)을 위한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천궁-2는 바로 그 목적에 기여한다.

걸프 국가들에 대한 한국산 무기 수출은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확산에 일조할 뿐이다. ‘평화’ 시기에는 역내 강국들 간 경쟁 격화와 걸프 군주들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가 중동 국가들에 ‘방어용,’ ‘비살상용’ 무기를 포함해 어떠한 무기도 수출·지원해선 안 되고 트럼프의 파병 요구도 거부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 2003~2004년

#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의 교훈

2003년 3월 20일,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2세가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국제적으로 대규모 반전 운동이 시작됐다.

2003년 2월 15일 60여 나라, 600여 도시에서 600만~1,00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영국 BBC 보도). 프랑스의 정치학자 도미니크 레미에의 조사를 보면, 2003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 전 세계에서 항의 시위가 3,000번 열렸고, 약 3,600만 명이 참가했다. 전례 없는 국제적 동원이었다.

한국에서는 2002년 말 대선 직전에 의정부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에 항의하는 40만 명 규모 청년 시위가 벌어졌다. 여중생 압사 항의 시위의 배경에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대한 반감과 우파 이회창이 당선할지도 모른다는 개혁 염원 대중의 우려가 있었다.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는 이 시위 덕에 이회창을 꺾고 당선



국제 반전 운동과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한국 최초의 대중적 반전 운동이 등장했다

됐다. 당시 노무현은 호기롭게 “반미면 어떠냐”며 친미 정서에 도전하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개혁 염원이 더욱 커졌다.

국제 반전 운동의 분출과 이러한 한국 정치 상황 속에서 한국 최초의 대중적 반전 운동이 등장했다. 이것은 노동자연대 전신인 ‘다함께’와 평화주의 활동가들이 쏟은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다.

2002년 10월 26일 인사동 입구에서 이라크 전쟁 반대 첫 집회가 열렸고 200여 명이 모였다. 2003년 2월 15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국제 반전 행동의 날 집회에는 수천 명이 모였다. 그 운동은 노무현 정부의 파병에 거세게 항의했고, 2003년 3월 국회의 파병 결정을 두 차례 연기시키기도 했다. 2004

년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피랍되자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작고한 서동만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라크 파병 결정이 노무현 정부를 임기 초반부터 위기에 빠뜨렸다고 회고했다. 당시 청와대 요직을 지낸 문재인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진보 진영이 참여정부에 등을 돌린 첫 계기로 이라크 파병을 꼽을 정도로 반전 운동의 압력은 상당했다.

## 민주당 정부에 대한 착각과 기대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모두 미국을 도와 파병한 전력이 있다. 김대중 정부는 9·11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 첫 제물로 삼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다. 노무현 정부는 부시의 둘째 표적인 이라크에 파병했다. 이것은 민주당 정부들이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이라크 석유 시설 건설이나 재건 사업에서 이윤을 챙기려 했다. 이것이 정부가 말한 “국익”이었다. 노동계급에게는 차별과 억압을 가하는 자들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반전 운동에 참여한 자민통계와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를 운동의 표적으로 삼는 것을 애써 회피하려 했다. 이들은 파병에 관해서 미국의 압박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했고, 한국 자본주의 나름의 이익을 위해 노무현 정부가 파병을 선택한 것이라는 측면은 회피했다. 좌파 민족주의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자민통계와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미국의 파병 압박을 물리치도록 노무현 정부를 돕는다는 관점으로 반전 운동을 이끌려 했다. 그래서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과의 공조를 중시하며 국회에서 파병 결정을 무산시키는 데에 무게중심을 뒀다.

그러나 당시 여당은 파병을 거부하지 않았다. 국회가 파병을 두고 심각하게 동요한 유일한 때는 2003년 3월이었는데, 그것은 노무현을 대선에서 지지한 광범한 청년층의 표심(이듬해 총선에서)을 의식해서였다.

그러나 2003년 4월 2일 노무현은 직접 헬기를 타고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했고 국회는 결국 파병을 통과시켰다. 2004년 전투병 파병 후에도 국회는 매해 이라크 자이툰 부대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연장에 동의했다.

은근히 기대를 걸었던 노무현 정부가 2004년 8월 자이툰 부대 파병을 강행하자 반전운동은 더 분노하고 급진적이 되는 게 아니라 급속히 사그라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환멸과 좌절감을 느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독립적이지 못했던 노선의 귀결이었다.

## 국제주의적 반제국주의

반전 운동이 사그라든 데에는 한반도 평화에 초점을 맞추려는 협소한 관점도 작용했다. 반미를 핵심 강령으로 하는 자민통계는 당시 반전 운동에 늦게 뛰어들었을 뿐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운동의 초점을 이라크가 아니라 한반도로 돌리려고 시도했다.

사실 2003년 4월 바그다드가 함락되자 자민통과 참여연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라크 반전 운동을 접으려 했다. 결국 이들은 열의 있는 반전 활동가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당시 반전 연대체를 해산시켜 버렸다. 여기에는 노무현 정부를 처음부터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깔려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전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세력은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곧 시작될 것이며, 한국 정부가 이에 따라 추가 파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예측은 옳았음이 2003년 가을에 입증됐다. 미국의 점령에 맞서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시작됐고 다급해진 부시는 한국 정부에 추가 파병을 요구했다. 팔레스타인 제2차 인티파다 3주년인 2003년 9월 27일 국제공동행동부터 2004년 여름 자이툰 부대 파병 전까지 다시 한국 반전 운동이 불붙었다. 제국주의의 역학에 대한 분석, 국제주의적 시각과 전망의 중요성을 보여 준 사례다.

자민통과 참여연대는 다시 부랴부랴 연대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실천은 필자가 위에서 서술한 대로였다.

당시 운동에서 간과된 한 가지 돌아볼 문제는 노동계급의 구실이다. 제국주의가 자본주의라는 경쟁적 축적 체제에서 비롯하는 만큼,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노동계급의 구실이 중요하다.

그러나 당시 조직 노동자들의 반전 운동 동원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2003년 3월 국회 앞 시위 등에 동원하고, 항공조종사노조가 김선일 씨 피랍 때 파병 운송 거부를 선언하거나, 서울지하철노조가 반전 운동을 지원(후원금과 역사 내 반전 포스터 광고와 방송 협조 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조합원 동원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그저 ‘다함께’ 노동자 회원들이 일터에서 모임 등을 꾸려서 동료들을 반전 운동에 끌어들이는 성과를 낸 작은 사례는 있었다. 극소수 활동가라도 때로는 운동을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얼핏 보여 준 사례다.

트럼프가 이란에서 전쟁을 벌이고 한국 정부가 파병을 논의하는 지금, 지난번 한국 반전 운동의 교훈을 되짚어 보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국제주의적 반제국주의 관점, 민주당을 비롯한 온건 진보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태도, 노동계급을 동참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를 굳건히 밀고 나갈 혁명적 세력의 역할이 그 교훈이다.

# 이란 정권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서 미국·이스라엘의 전쟁을 반대해야 한다

트럼프의 이란 공격은 그가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는 끝없는 전쟁일 것이다)의 최신 라운드다.

트럼프는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리며 전쟁을 일으켰고, 트럼프와 협공하는 이스라엘은 이란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헤즈볼라 등 적대자들을 분쇄해 지역 판도를 바꾸고자 한다.

그들이 일으킨 전쟁에 중동 11개국이 휘말렸고, 불안정이 커져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일각에서는 이란 정권의 두 달 전 대학살에 눈감고 이란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편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강국을 지지해 제국주의에 맞선다는 생각이다. 노정협 같은 스탈린주의 종파는 이런 관점을 절대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이 성공하면 팔레스타인인들과 평범한 중동인들이 더 궁지로 몰릴 것이다

해, 노동자연대를 “제국주의의 벗”이라며 비판한다.

노정협은 올해 1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략했을 때도 마두로 정부가 반제국주의 정부라며 무비판적으로 옹호했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재확인”한 델시 로드리게스가 미국에 석유를 개방하자 노정협은 ‘입꼭달’했다.

한편 그 맞은편에는 억압적 ‘신정 체제’인 이란 정권을 편들 수 없으므로 이란 정권이나 미국·이스라엘이 다를 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은 이란인들의 저항을 돕기는 커녕 후퇴시킬 것이다. 심지어 반정부 세력의 우익 반동적인 부분, 즉 이스라엘 깃발을 흔들며 폭격에 환호하는 팔레비 복귀 지지자들을 고무할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반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이유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팔레스타인인들을 포함한 평범한 중동인들이 지금보다 더한 궁지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인들이 마주한 적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그랬듯 이란인들의 목숨을 완전히 하찮게 여긴다. 미나브 초등학교 폭격은 이를 뚜렷이 보여 줬다.

## 지역 강국 옹호해 제국주의 맞서는 전략의 문제점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야만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지난 2년은 이란 같은 지역 강국을 옹호함으로써 제국주의에 맞선다는 전략의 약점을 보여 줬다.

이란은 중동에서 “저항의 축”을 이끈다고 자처해 왔다. 헤즈볼라와 이라크 민병대들뿐 아니라 심지어 시리아의 범죄적인 알아사드 독재 정권도 몰락하기 전까지 그 축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란은 가자인들이 인종학살 당할 동안 싸우지 않았다. 지난해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공격한 후에야 비로소 이란은 이스라엘을 소극적으로 반격했다.

이는 이란 정권의 우선순위가 중동 지역 강국들 간 경쟁에

서 이란 국가의 정치적·군사적 힘을 확대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란 정권은 “저항의 축”을 이용하는 한편 제국주의 열강, 러시아·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었다. 이란의 발달한 드론 기술력과 제조 역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도 도움을 줬다.

이란 정권은 이란 국가 강화를 우선해 그 부담을 이란 민중에 떠넘겨 오면서 심지어 근래에는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정당성을 잃었다.

이란 정권의 손에는 특히 올해 1월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다 학살당한 수천 명의 피가 묻어 있다.

이 시위는 2009년부터 거듭된 이란 내 저항의 가장 최근 사례였다. 물가 급등과 정치적 억압에 대한 분노가 결합돼 반정부 시위가 이란에서 주기적으로 벌어져 왔다.

물론 트럼프가 다시 부과한 더 강력한 제재는 이란의 경제를 더 궁핍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란 정권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난 수십 년간 맹렬히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실패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도 하다.

이란 정권은 공공 서비스 민영화를 맹렬히 추진하고, 일자리를 삭감하고 불안정화했다. 그러나 경제는 외려 ‘역성장’했고, 물가는 폭등했고,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지난해 12월 말 이후 분노한 이란 빈곤 청년들의 항의가 분출하자 정권은 권위주의적 폭력으로 대응했다. 정권에 대한 대중의 증오가 짧은 기간에 급격히 쌓여 왔다.

이 때문에 지금 이란 정권은 제국주의·시온주의 전쟁 기구에 맞선 저항으로 대중을 결집시키기 어렵다. 그럴 의지가 없을 것이다. 얼마 전 대량 학살한 청년 노동계급을 두려워할 테니 말이다.

이란 정권의 군사적 승리에 의존하는 전략으로는 진정으로 필요한 행위 주체를 불러내기가 어렵다.

## 진정 필요한 행위 주체를 동원할 전략

그러나 현재 전개되는 참사에서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해방을 쟁취하려면 그럴 잠재력과 이해관계가 있는 진정한 세력을 동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이란의 석유·가스 노동자들이 그런 구실을 했다. 1978~1979년 이란 혁명에서 그들의 대중 파업은 당시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의 양대 중동 우방이던 팔레비 왕정을 타도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었다.

가장 억압적인 정부라도 타도할 수 있는 힘은 외세 개입이 아니라 노동계급에게 있음을 보여 준다.

지금은 그때보다 중동 자본주의가 훨씬 성장했다. 중동 경제의 핵심인 걸프 연안 지역(이란 포함)에 강력한 힘을 품은 다국적 노동계급이 대규모로 존재한다.

그들은 살인적 폭염, 빈번한 산재, 고용 불안정, 빈곤과 빈부격차 등의 고통을 공유한다. 자국 정권 지지로 얻을 것이 전혀 없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란 노동자들과 그 노동자들에게는 그 정권들 모두에 맞설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그 노동자들이 단결하면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흘끗 보여준 두 사례가 있다.

하나는 2011년 '아랍의 봄' 항쟁이다. 미국의 역내 핵심 우방이던 이집트 독재자 무바라크를 비롯해 곳곳에서 독재자들이 몰락했다. 중동 질서가 뒤흔들리자 그 질서에 기대 있는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최대 안보 위기”(네타냐후 자신이 인정한)에 전을했다.

두 번째 사례는 지난해 이탈리아·그리스·모로코 등 지중해 여러 항구에서 손발을 맞춘 총파업과 봉쇄, 거리 행동이다. 이 노동자들은 이스라엘의 전쟁 기구가 가자지구에서 작동하는 데에 일부 차질을 줬다. 그 선두에 선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중동 출신 이주노동자들이었다.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그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설 자신감과 정치적 힘을 줬다.

역사적 사례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서 프랑스는 대패하고 황제 나폴레옹 3세는 포로가 됐다. 후임 공화파 정부는 수도 파리를 버리고 도망쳤다.

프로이센과 반동적 정부군에 맞서 파리를 방어한 것은 노동계급 사람들이었다. 스스로를 방어하면서 파리 민중은 파리 코뮌을 수립해 미래 노동자 권력의 해방적 잠재력을 단기간이나마 보여 줬다.

코뮌은 프로이센과 정부군의 합동 공격에 밀려 안타깝게도 단명했지만, 전쟁과 전쟁을 낳는 국제적 국가체계에 맞설 진정한 행위 주체를 보여 주는 노동계급의 기억으로 남았다.

제국주의에 맞서는 사람들의 과제는 중동에서도, 다른 (친)서방 지역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을 단결시켜 반전 운동을 건설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

소책자를 읽고 궁금하거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02-777-2792 | [wspaper@ws.or.kr](mailto:wspaper@ws.or.kr) |    “노동자 연대” 검색

좌파 주간 신문

# 노동자 연대

Workers' Solidarity "민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ws.or.kr



매주 발행되고, 전국으로 배달됩니다

▶ <노동자 연대>는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입니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 매호 빠짐없이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구독료 및 우편료가 인상돼도 추가 부담료가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우편료 포함): 연 50,000원

• 신청: 02-777-2792, ws.or.kr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제보·기고를 기다립니다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02-777-2792, ws.or.kr



#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착취, 차별, 제국주의와 전쟁, 기후 위기, 불평등 등에 맞서는 투쟁에 연대하는 국제주의·반자본주의 좌파 단체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의 근원이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진정한 사회주의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힘은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본적 사회 변혁이 성공하려면 자본주의 체제의 폐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미리 구축돼야 합니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 오늘날 자본주의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주의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하고 실천합니다.

## 우리와 함께 합시다

이름

---

휴대전화

---

이메일 (또박또박)

---

주소 (시/군/구까지)

---

소속 (  직장  노동조합  대학교  중고등학교  기타 )

---

※ 위 양식을 작성해 사진을 찍어 [wsorg@ws.or.kr](mailto:wsorg@ws.or.kr) 또는  
010-4909-2026으로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연락 드립니다.

※ 웹사이트 [ws.or.kr](http://ws.or.kr) 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규알 코드를 스캔하세요)